

# “아랍과 아시아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Interviewee : Peter Shaukat (“Global Investment Fund”, CEO, Co-founder; www.transformationalSME.org)

대담 김재구

하나님의 경계를 이 땅에 실현하지는 경제부흥회. 이 곳에서 강사로 섬기기 위해 내한한 피터 슈가트(Peter Shaukat) 선교사님을 만났다. 투자자로서의 예리함과 함께 열정이 넘치는 첫 인상이었다.

## 선교사님께서 하시고 계신 비즈니스 선교사역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Global Investment Fund’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고, 이후 중동과 중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선교활동을 해왔습니다. 1990년대 말에 선교로서의 비즈니스(Business as Mission, BAM)를 실천하는 기업 Transformational SME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랍과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면서 벤처캐피탈 및 재정자금, 그리고 사업에 대한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이 지

역의 BAM 기업이나 개인을 개발하고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역할은 고객들이 사업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슬람과 힌두, 불교 세계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열방가운데 제자 삼으라”는 지상대명령(Great Commission)을 수행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비기독교인에게 다가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BAM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이 사업 및 사역에 주신 말씀은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투자하고자 합니다.
2. 친절함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직업을 주고, 종업원을 잘 섬기고, 가족들을 선대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하고자 합니다.
3.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는 말씀과 같이, BAM 기업들을 투자와 연결시켜주고자 합니다. 투자 기금은 물론 투자자들에 의해 조성됩니다.

사람들은 미래 안전을 계획하기 위해 재정자문가나 정치가들에

\* 선교사의 이름과 기업명은 당한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을 위해 기명을 사용하였다.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BAM은 비즈니스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성은 물론, 선교 효과를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BAM의 특징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존재하는 상업적 회사라는 것, 또 하나는 의도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행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다보니 우연히 예수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 기업 선교가 곧 변혁의 원천이 되게 하지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BAM의 성과는 상업적 적합성과 지속가능한 재무적 수익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액처럼, 돈 없이는 기업이 기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돈 자체를 위해 기업이 존재한다면 주객이 바뀐 거겠지만, 그렇다 해도 기업에게서 돈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BAM 기업들은 자본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고, 특히나 창업 당시엔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분(자본)으로 부채와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과는 선교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삶의 가치와 질을 높입니다.
- 2) 이민노동자나 경제적 빈곤에 처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3) 무능과 차별 등의 상황에서 비즈니스적 해결책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4) 이슬람이나 힌두, 불교신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전도 민족들의 경우 대개 80%가 이슬람이나 힌두교도들입니다.

5) BAM은 교회 개척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 **크리스천 기업가들에게 비즈니스 사역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크리스천은 일터에서 서번트(servant)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 갈 것인가'를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세계 현안이 펼쳐져 있는 가장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물론 탐욕과 기만 등이 가득 찬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점은 바로 시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겠지요.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비밀을 궁금해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공의 비결과 비밀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서 걸어오게끔 하는 낚시와도 같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며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비행기로 여행하다가 옆 좌석에 있는 사람과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는 경제학자라 하더군요. 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선교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였지요. 그는 “당신은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말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속으로 ‘예수님, 지금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즉 그들의 세계관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다시 투자하도록 하거든요. 우리는 사업을 예수님께 하는 약속처럼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윤리강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그러자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진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고 따르는 그 투자의 원칙을 IMF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의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회사의 CEO이며, 회장, 이사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CEO이십니다. 그 분이 이 회사를 주셨으니 우린 청지기로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따름입니다.

### 한국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BAM 기업에 투자할 때는 크게 비즈니스와 영적인 측면을 심사합니다.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는 마케팅, 제품, 개발, 부품공급, 재무, 리더십, 지배구조, 경쟁력 등을 살펴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주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검증하고 말이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기업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400명을 직원을 두고 있는데, 주로 이민자들을 고용하여 회사 내에서 복음

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백만 명에 이르는 터키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교회나 터키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계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활동은 이집트, 브라질, 튀니지 현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인도의 힌두 타임즈에 실린 기사로, 학교가기 어려운 아동 400명을 돕는 기업의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그 사업이나 학교, 심지어 선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던 지역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죠.

한국은 이민 노동자가 많은 나라이며,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기업가들이 선교 사업(BAM)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세계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다만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선교는 오래된 회사라도 충분히 변화되어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re-birth)’고 하는 건 크리스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BAM의 실천은 우리의 삶과 기업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W**



김재규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며 전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 교학부장, 전 기독교경영연구원 이사이다. 현재는 한국크라운재정사역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